

# 문화적응 유형화를 중심으로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Among Immigrated Women Focusing on Typology of Cultural Adaptation

이아진 · 최연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Lee, Ah Jin · Choi, Youn Shil\*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n characteristics of sociological and demographic population, marital conflicts and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surrounding factors of cultural adaptation among immigrated wome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36 immigrated women in Kyonggi province, Seoul metropolitan cities, Cholla and Chunchung provinces and Inche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relatively few marital conflicts were found, as a whole, while they had the high levels of expectation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Second, immigrated women can be clustered as three different types: 'multiplicity type', 'undifferentiated type' and 'adaptation type'. Third, sociological and demographic population characteristics which were subdivided and clustered according to cultural adaptation made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ach population. Population with multiplicity type out of the above-stated three types accounted for the highest conflict rates, while population with 'adaptation' type accounted for the lowest conflict rates. Lastly,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mad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each population. Population with multiplicity type showed the highest expectation levels on expectations to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while population with undifferentiated type showed the lowest levels.

**Keywords:** immigrated women, marital conflicts, family counselors, cultural competence, cultural adaptation

### I.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결혼의 양적 기여에 따라 우리 사회는 '다문화시대의 도래'를 익숙하게 체감해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문화사회에의 적응'은 핵심적이고도 현실적인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서 상이한 두 나라의 문화가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하밍타 잉, 2005), 결혼생활에서 문화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서의 결혼생활도 근원가족(family of orientation)에서의 생활방식이나 가족문화의 차이로 인한 적응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새로운 문화

---

\* Corresponding author: Choi, Youn Shil  
Tel: 02-2287-5317  
Email: yschoi@smu.ac.kr

에 대한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위해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한국에 와서 결혼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첩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들은 그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 나아가 그들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그들의 결혼생활뿐 아니라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 부부는 일반적으로 겪는 결혼생활에서의 문제나 마찰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화의 격차 등 문화적응상의 어려움에 기인한 부부 및 가족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양순미, 정현숙, 2006).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이 가족 및 부부간에 겪고 있는 문제점은 대체로, 첫째,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홍달아기, 채옥희, 2006a, 2006b), 둘째,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김오남, 2006b; 신경희, 양성은, 2006; 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셋째, 문화적 차이(강유진, 1999; 김오남, 2006a;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넷째, 고부갈등(신경희, 양성은, 2006; 윤형숙, 2004), 다섯째, 남편과의 사고방식, 습관, 성격 차이(강유진, 1999; 양옥경 외, 2009; 이규삼, 1999) 등이다. 이외에 이주여성은 외출이 자유롭지 않고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윤형숙, 200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과 관련하여, 김오남(2006b)은 부부간의 큰 문화격차가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과 함께, 결혼이주여성이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자신의 모국문화를 고집하여 한국 사회에 타자화된 입장을 지속하는 문화수용태도를 보인다면 부부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화수용태도는 다른 연구(박태영, 1998)에서도 이민자들에게 부부생활의 갈등과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문화부적응이나 문화차이에 의한 부부문제는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총 이혼건수에서 9.7%의 비율을 차지하는 등(통계청, 2009) 국제결혼부부의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인 대처방안이 제점검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경신,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이후 전국 규모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05; 여성

가족부, 2006)를 실시하였고, 부부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도사 방문을 통한 결혼안정화사업(여성가족부, 2005)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결혼생활 지원이나 가족에 대한 개입 중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아 온 것이 상담이다(김유경 외, 2008; 이선주 외, 2008). 상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처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제해결방식이지만, 특히 가족상담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이나 부부, 혹은 그들이 속한 다문화가족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개인적 차원이나 통합적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필요하고도 절실한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문제나 갈등에 대한 가족상담 등의 전문적 개입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도된 것이 거의 없으며, 관련된 자료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소수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문제나 갈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의 개입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05)의 연구에 따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부부간 불화를 경험할 때 가장 많이 의존하는 대상은 ‘모국인 친구’(29.3%)이며, ‘자신의 가족 친척’(18.6%), ‘남편의 가족 친척’(10.6%) 순이며, ‘전혀 없다’(15.0%)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선주 외(2008)의 연구에서도 여성 결혼이민자가 경험한 사회서비스 중 부부상담은 소수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부부상담, 가족상담이 제공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모두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내 상담 분야에서 다문화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색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김태호, 1995; 박외숙, 1996; 송미경, 2009), 다문화가족상담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추세(남순현, 2008)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이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비율과 그들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겪는 가족문제를 고려해 볼 때, 가족상담에서의 다문화적 접근 필요성은 시급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및 욕구를 알아본 양옥경 외(2007)의 연구는 가족상담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고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 그들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사회 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뿐만이 아닌 문화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과 실무자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

문화에 대한 개방성 및 인식의 증진이 필요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가족상담에 적용시키면, 상담을 원하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문화적 민감성을 갖춘 상담자, 즉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원만히 상호작용하고 타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기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가족복지분야에서는 다문화 대상자에 대한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을 갖춘 실천가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다문화연구자들과 실천가들 사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연희, 2007; 최현미 외, 2008).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클라이언트와의 효과적인 가족복지실천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기술 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소들은 실천가들뿐만이 아닌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만나는 전문 인력 모두에게 해당하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살펴본 선행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김오남, 2006a, 2006b; 노하나, 2007; 박은진, 2007; 이윤호, 2007), 이주여성의 정체성(박주희, 정진경, 2007; 최운선, 2007),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방안(양옥경 외, 2007), 문화적응과 이주여성의 심리적 보호요인(최혜지, 2009), 국제결혼에서의 적응과 결혼생활의 적응 유형(정천석, 강기정, 2007; 최규해, 2007; 최연실 외, 2007) 등이 다루어져 왔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있어서 문화적응과 결혼생활의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문화적응의 양상에 따라 결혼생활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문화적응에 초점을 두기보다 스트레스와 그들의 정신건강성을 다루거나, 양적인 접근보다 질적인 접근을 통해 문화적응의 유형을 끌어내는 작업이 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루어지는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초점을 두고 유형화에 따라 그들의 적응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양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결혼생활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의 경향과 특성을 탐색하고 이를 군집화시켜 유형을 도출해내는 작업을 시도한다. 문화적응 상태는 이념형으로는 Berry(2001)의 이론에서 처

럼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로 나눌 수 있지만, 현실형으로는 이러한 성향들이 복합적, 중층적으로 작용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유형을 통해 바로 이러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현실에 근거한 문화적응 양상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은 이 집단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배경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부부갈등을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집단들에서 부부·가족상담이 필요한 문제상황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작업은 이 유형별로 차별화시켜 내담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문화상담 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해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성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문화적으로 역량 있는 가족상담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국제결혼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에 따른 군집의 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양상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문화적응’이란 문화적 근원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결과로서 야기되는 변화과정을 일컫는 개념이다. 문화적응은 정착국의 사회문화적인 상황과 이민자의 출신국, 이

민의 동기, 정착국에서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와 이민자의 대처능력, 자원 등의 개인적인 요소들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김연수, 2007).

구체적으로 문화적응의 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사회로 이주한 개인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겪게 되는 문화적응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뉜다(Berry *et al.*, 1998). 첫째, ‘접촉 이전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이주를 결심하도록 만든 개인적·사회적 요인이 작용한다(예, 사업의 실패와 좌절,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갈구 등 개인적인 동기, 전쟁의 위협, 가난, 인구과밀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둘째, ‘접촉기’는 이주 초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는 새 문화와 접촉해서 문화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셋째, ‘갈등기’로 이 시기는 이주자들이 생활해 가는 과정에서 이주 국가의 문화적 압력이 개인이나 이민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이주자는 불확실성과 혼란을 겪기 쉽다. 넷째, ‘위기기’로 갈등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긴장과 갈등이 계속되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유발된다. 후회와 좌절, 자살, 공격적인 행동, 가정불화, 술과 약물의 탐닉 등이 그 예이다. 이주 후의 생활의 성패는 이 시기에 결정이 된다. 다섯째, ‘적응기’로 갈등기와 위기기를 넘기면서 문화에 적응하게 된다(이승중에서 재인용, 1995).

Berry(1976)는 문화적응상태를 두 차원의 4가지 결과로 범주화하고 문화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그가 범주화한 두 가지 차원이란 첫째, 그들 원래의 문화적 특성 및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지와 둘째, 새로운 주류 사회의 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가치와 행동 규준들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차원에 따른 4가지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면 ‘통합(integr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리(separation)’,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하지 못하면 ‘주변화(marginalization)’가 된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연구로 미군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적응에 대한 연구들(박종삼, 1983; 송성자, 1974)이 있다. 최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같이 살펴본 것이다. 중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알아본 노하나(2007)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주변화가 가장 적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중 통합과 동화 유형을 많이 보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연구한 양옥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났고, 문화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리, 주변화의 경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살펴본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간의 관계를 알아본 박은진(2007)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화의 수용 여부보다는 기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여부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건강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본 박주희, 정진경(2007)의 연구에서는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상황요인과 대처전략으로 범주화하여 이 두 요인이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황요인(언어와 문화의 습득,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원, 자녀양육, 한국사회의 이주여성 수용도)과 대처전략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정체감에 영향을 미쳤고, 이들의 문화적응 유형은 대부분 동화와 통합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화와 통합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동화의 특성만 갖고 있는 여성에 비해 한국생활을 잘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특성을 연구한 최혜지(2009)의 연구는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상태를 밝히고, 기존 문화적응유형의 단일차원적인 시각을 넘어 다차원적 시각에 기초하여 특성을 규명하였으며, 심리적 보호요인과 함께 문화적응에 따른 이주여성의 심리적 회복력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사회적 지원방안과 함께 살펴본 것이다. 서울 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살펴본 양옥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

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에 모국어 상담 지원 서비스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을 정리해보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의 주요문제는 문화적 차이,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남편과의 사고방식차이, 남편의 폭력, 시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1990년대 이전 연구에서 국제결혼한 여성과의 상담을 통해 국제결혼에서의 부부갈등을 연구한 송성자(1974)는 결혼을 둘러싼 사회 관련조건과 부부사이의 차이점의 정도, 의사소통의 장애, 인종 멸시, 친척들의 냉대 및 반대, 국제결혼에 대한 경제적·정서적으로 지나친 기대, 친정의 지나친 의존 등을 국제결혼부부의 갈등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한·미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을 연구한 박종삼(1983)은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대인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가족관계에서의 문화적 갈등, 재정 관리와 문화적 갈등 등으로 설명하면서 국제결혼의 문제가 심각함을 언급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주요문제로 문화적 차이를 주목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을 연구한 김오남(2006a)의 연구에서는 자원 모델, 성역할모델, 관계성모델, 문화모델 등 4가지 모델로 부부갈등을 요인분석 하였는데, 그 결과 문화모델이 부부갈등에 가장 영향력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문화적 변수가 부부갈등 및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오남(2006b)의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별 차별적인 개입과 문화적 차이 해소 교육, 보다 많은 사회적 지지, 한국어교육 등이 제공될 때 부부갈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부부갈등이 심각할 때 학대의 발생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대처기술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을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윤형숙(2004)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문화적 차이(언어차이, 음식문화차이),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음주와 도박, 자녀양육방식,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을 언급하였다. 신경희, 양성은(2006)의 연구에서도 필리핀 출신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구결과 결혼과정에서 드는 경제적인 비용, 국적취득, 의사

소통 문제, 친정에 대한 경제적 원조, 고부관계 등에서 부부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를 살펴본 강유진(1999)의 연구에서는 중국조선족 여성들이 결혼에 이르는 동기와 과정, 가족생활 실태 및 양국 간 문화적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가 결혼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었다. 조선족 여성들은 전반적인 가족관계 중 남편과의 관계에 가장 큰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으로 생활습관, 언어장벽으로 인한 갈등, 경제문제, 남편과의 성격차이, 폭언 및 폭력 순으로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이주여성 연구를 살펴보면, 손은록(2004)의 연구에서는 건강, 의사소통, 애정·성 문제, 재정적 문제, 외도, 가치관, 생활방식, 무관심한 성격,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중심성, 대화 시간에 따른 의사소통, 냉정한 성격 순으로 부부갈등 요인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부부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촉발하는 요인으로는 남편의 폭력, 폭음, 흡연의 순으로 나타났고, 의사소통과 문화적 요인 등이 부부갈등의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성적 관계,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장애, 사회문화적 요소 등이 부부생활에 직접적으로 작용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인과 일본인 여성 부부의 부부갈등요인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이규삼(1999)은 인구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의사소통요인을 부부갈등영역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결과,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경제적 문제 등에서 높은 갈등이 나타났다.

그 외, 이주여성의 가정생활내용을 정리하여 이들이 갖는 문제와 적응하는 데 갖는 욕구를 알아본 홍달아기, 채옥희(2006a, 2006b)의 연구에서는 부부관계나 자녀관계에서 적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이기 때문에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한글교육이 가정생활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3.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는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내담자 자신과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담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expectation)'이다(장성숙, 황주연, 2006). 기대는 내담자가 상담에 오기 전에 갖는 생각

과 예측으로서 상담의 지속과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렇듯 내담자가 상담자에 대해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담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상담상황에서 자신과 상담자의 태도 및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기혼남녀의 가족상담기대를 연구한 하지승, 최연실(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상담을 원하는 내담자가 가족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자의 전문성으로서의 문화적 민감성이나 유능감은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조사와 관련된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표면적 복지뿐만이 아니라 국제결혼부부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 간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시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적 민감성에 바탕을 둔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양옥경, 김연수, 2007).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Green(1982)과 Pinderhughes(1989)가 처음으로 ‘문화적 역량’의 개념을 소개한 이후(최현미 외에서 재인용, 2008), Cross *et al.*(1989)이 문화적 역량에 관한 논의를 개인실천가 차원의 역량에서 서비스 전달조직과 거시차원에서의 논의로 발전시켰다. 그들이 제시하는 문화적 역량의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클라이언트와 실천가 간의 문화의 이질성에 대한 인식과 인정, 조직 내의 동료들이나 외부의 실천가들 간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 둘째, 실천가 자신의 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인식, 셋째, 문화적 차이가 빚어내는 역동성에 대한 이해, 넷째,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그의 문화적 맥락에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가 속한 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다섯째, 일반적인 실천이론이나 원조기술을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조정하여 활용하는 것 등이다(최현미에서 재인용, 2008).

이와 더불어,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Manoleas(1994)는 지식기반, 기술기반, 가치기반 등으로, McPhatter(1997)는 ‘계몽된 의식(enlightened consciousness)’, ‘근거에 기반을 둔 지식(grounded knowledge base)’, ‘축적된 기술적 능력(cumulative skill proficiency)’ 등 세 가지로 요약한다. 이를 정리해보면, 문화적 역량이 갖는 공통적 요소는 첫째, 실천가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인식과 타집단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둘째, 다양한 문

화와 문화집단에 관한 지식, 셋째,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기술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최현미 외, 2008)

따라서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족상담자는 가족상담 분야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적 인식, 다문화지식, 다문화적 개입기술을 갖춘 상담자를 말할 것이며,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는 바로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구비한 상담자에 대한 기대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절차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다. 본 연구 조사대상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전체 인원수는 236명, 연령의 평균은 28.7세이다. 대부분이 20대와 30대의 젊은 여성들로서 40대 이상의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출신국은 총 11개국으로 베트남 88명(37.3%), 중국 71명(30.1%), 필리핀 54명(22.9%)의 순이며, 기타 국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도 23명(8.7%)으로 그들의 출신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몽골, 일본, 우즈베키스탄,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캄보디아 등이다. 결혼기간은 대부분이 5년 이하(206명, 87.3%)로 가장 많았고,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있는 가족의 비율이 165명(69.6%)으로 더 높았다. 국내 거주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 93명(39.4%), 전라도 47명(19.9%), 충청도 37명(15.7%), 인천 33명(14.0%), 서울 26명(11.0%)의 순이다. 종교는 무교인 결혼이주여성이 82명(34.7%)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54명(22.9%), 천주교 48명(20.3%), 기독교 21명(8.9%), 통일교 12명(5.1%), 기타 19명(8.1%)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65% 이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의 교육수준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결혼기간은 대부분 5년 이하로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았다(170명, 72%). 남편의 직업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80명(3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무직 45명(19.1%), 자영업 29명(12.3%), 무직 21명(8.8%), 농·임·어업 19명(8.1%), 단순노무직 17명(7.2%), 판매직 12명(5.1%), 서비스직 8명(3.4%), 기술자 3명(1.3%), 전문직 2명(0.8%)

순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은 대부분이 가정주부(201명, 85.2%)이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율이 83명(35.2%), 다음으로 시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 62명(26.3%), 시부모와 부부가 함께 사는 형태 42명(17.8%) 순으로 나타났다.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136명(57.6%)으로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100명(42.4%)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은 100~200만원 미만인 4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0~300만원 미만 59명(25%), 100만원 미만 42명(17.8%), 300~400만원 미만 15명(6.4%), 400만원 이상이 6명

(2.5%)에 불과하였다.

2)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전라도, 충청도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5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곳의 한국어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2009년 5월 13일까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 27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내용과 어려운 단어, 문항 등은 전공분야 연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36

변수	N(%)	변수	N(%)		
연령	20~30세	163(69.1)	남편직업	무직	21(8.9)
	31~40세	56(23.7)		자영업 종사	29(12.3)
	41~50세	17(7.2)		제조업	80(33.9)
출신국	중국	71(30.1)		단순노무직	17(7.2)
	베트남	88(37.3)		사무직	45(19.1)
	필리핀	54(22.9)		서비스직	8(3.4)
	기타	23(8.7)		판매직	12(5.1)
자녀	있음	165(69.9)		농,임,어업	19(8.1)
	없음	71(31.1)		전문직	2(0.8)
시부모동거유무	예	136(57.6)		기술자	3(1.3)
	아니오	100(42.4)		부인직업	가정주부
결혼기간	5년 이하	206(87.3)	자영업 종사		2(0.8)
	6~10년	19(8.0)	제조업		2(0.8)
	11~15년	8(3.4)	단순노무직		2(0.8)
	16~20년	3(1.3)	서비스직		13(5.5)
거주지역	서울	26(11.0)	판매직		1(0.4)
	경기	93(39.4)	농,임,어업		3(1.3)
	인천	33(14.0)	전문직	8(3.4)	
	충청도	37(15.7)	기술자	4(1.7)	
	전라도	47(19.9)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42(17.8)
한국 국적취득	취득	49(20.8)		100-150만원	61(25.8)
	미취득	170(72.0)		150-200만원	53(22.5)
	기타	17(7.2)		200-250만원	33(14.0)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21(8.9)		250-300만원	26(11.0)
	중학교 졸업	61(25.8)		300-350만원	7(3.0)
	고등학교 졸업	88(37.3)	350-400만원	8(3.4)	
	전문대 졸업	29(12.3)	400만원 이상	6(2.5)	
	대학교 졸업	37(15.7)	가족형태	부부와 자녀	83(35.2)
종교	기독교	21(8.9)		시부모+부부+자녀	62(26.3)
	천주교	48(20.3)		시부모+부부	42(17.8)
	불교	54(22.9)		기타	49(20.8)
	통일교	12(5.1)		한국어 능력*	상
	종교 없음	82(34.7)	중		135(57.2)
기타	19(8.1)	하	64(27.1)		

\* 주: 한국어 능력은 이해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5점 Likert형의 총 4개 문항 총점을 기준으로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구자 3명에 의해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여러 차례 수정·보완 작업을 하였다. 또한 이민자 여성의 한국어 실력을 고려하여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로 번역하였고,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를 제외한 기타 국가 여성들의 경우, 한국어로 면접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번역하지 않았다. 총 27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그 가운데 236부가 회수되어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 2. 측정도구

### 1) 문화적응

본 연구의 문화적응척도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Berry(2001)가 개발한 ‘동아시아문화적응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를 노하나(2007)가 번안한 28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에 수정이 불가피한 단어는 보완하여 사용하고, 하위영역으로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8개의 문항들이 얼마나 개념적으로 서로 동질적인 문항으로 분류되는가에 초점을 두어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요인적재량이 0.4미만인 문항을 제거하고, 본 연구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문항들을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22문항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은 Berry(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인1은 “나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 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나는 때때로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 사람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 사람이나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 사람들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요인명은 ‘주변화’이다.

요인2는 “나는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은 모국사람이다”, “나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다 모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나는 한국 사람들보다 모국 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 등으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요인명은 ‘분리’이다.

요인3은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 둘 다 있다”, “나는 모국어로 생각하는 만큼 한국어로도 잘 생각할 수 있다”, “나는 농담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한다”, “나는 한국 사람들과 모국 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나는 한국 사람이든 모국 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 등으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요인명은 ‘통합’이다.

요인4는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모국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나는 모국 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안하다”, “나는 모국 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쉽다”, “나는 모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로 구성되어, 이에 대한 요인명은 ‘동화’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통합 Cronbach's  $\alpha = .70$ , 동화 Cronbach's  $\alpha = .74$ , 분리 Cronbach's  $\alpha = .76$ , 주변화 Cronbach's  $\alpha = .79$ 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에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4개의 요인과 문항을 제시하였다.

### 2) 부부갈등

본 연구의 부부갈등척도는 최외선(1992)의 척도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상황을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성분분석과 직각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항들을 분석에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26문항이 활용되었다. 요인분석에 따른 각 요인별 Eigenvalue(설명변량)는 요인 1(시댁식구) 4.18(16.07), 요인 2(자녀) 3.62(13.90), 요인 3(남편 행동) 3.04(11.70), 요인 4(정서적 갈등) 2.55(9.81), 요인 5(경제난) 2.51(9.63), 요인 6(태도) 2.38(9.17)이다.

각 문항은 시댁식구 영역 6문항, 자녀 영역 5문항, 남편행동 영역 5문항, 정서적 측면 영역 4문항, 경제난 영역 3문항, 남편태도 영역 3문항 등 총 6개 영역으로 구성



〈표 2〉 조사대상자의 문화적응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h <sup>2</sup>
	주변화	분리	통합	동화	
나는 종종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 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727	.210	.024	.187	.42
나는 때때로 친구사귀기가 어렵다	.704	.132	-.104	.030	.42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지 않다	.692	.253	-.067	.193	.52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 사람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낀다	.686	.056	.152	.127	.56
나는 때때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674	.017	-.018	.073	.44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651	.154	.126	.116	.65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639	.173	.013	.028	.60
나는 때때로 한국 사람들이나 모국 사람들 모두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519	.297	-.048	.105	.48
나는 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국사람인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178	.768	.009	.155	.55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모국사람이다	.028	.722	.017	-.019	.49
나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다 모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345	.643	.084	.061	.37
나는 한국 사람들보다 모국 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302	.580	.186	.176	.46
내가 듣는 대부분의 음악은 모국음악이다	.246	.558	.195	-.096	.62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 둘 다 있다	-.029	-.037	.751	.171	.50
나는 모국어로 생각하는 만큼 한국어로도 잘 생각할 수 있다	.080	.084	.747	.105	.53
나는 농담할 때 한국어와 모국어를 둘 다 사용한다	.123	.034	.636	.008	.60
나는 한국 사람들과 모국 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043	.169	.571	.112	.54
나는 한국 사람이든 모국 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	-.348	.172	.534	.252	.37
나는 한국 사람들이 모국 사람들 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한다고 느낀다	.087	.170	.043	.764	.62
나는 모국 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안하다	.192	.104	.076	.754	.51
나는 모국 사람들 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더 쉽다	.250	.053	.275	.678	.61
나는 모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107	-.203	.333	.617	.58
Eigenvalue	4.10	2.59	2.47	2.30	
설명변량	18.62	11.79	11.22	10.45	

하였다. 예를 들어, 시택식구 영역은 “시택식구들이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해서 갈등이 생긴다”, 자녀 영역은 “남편이 자녀의 생활습관이 나빠지는 것을 나의 책임으로 돌려서 갈등이 생긴다”, 남편행동 영역은 “남편이 나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 갈등이 생긴다”, 정서적 측면 영역은 “남편과 나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어 갈등이 생긴다”, 경제난 영역은 “가정수입이 불충분하여 가족부양에 어려움이 있어 갈등이 생긴다”, 남편태도 영역은 “남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지시적이어서 갈등이 생긴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부갈등 신뢰도는 시택식구 요인 영역 Cronbach's α=. 89, 자녀 요인 영역 Cronbach's α=. 87, 남편행동 요인 영역 Cronbach's α=. 84, 정서적 측면 요인 영역 Cronbach's α=. 79, 경제난 요인 영역 Cronbach's α=. 86, 태도 요인 영역 Cronbach's α=. 85이었다.

### 3)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본 연구의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척도는 Ponterotto *et al.*(2002)이 개발한 ‘다문화상담 지식 및 인식 척도(Multicultural Counseling Knowledge and Awareness Scale: MCKAS)’를 참고로 총 32문항을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15문항으로 수정·보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15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총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문항이 탈락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활용된 것은 13문항이다. 요인분석에 따른 각 요인별 Eigenvalue(설명변량)는 요인1(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3.91(30.04), 요인 2(타문화에 대한 이해) 3.47(26.69), 요인 3(다른 문화와의 소통) 2.92(22.46)이다.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는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4문항, 타문화에 대한 이해 5문항, 다른 문화와의 소통 4문항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은 “나를 만나는 가족상담자가 문화적 편견 없이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는 “나를 만나는 가족상담자가 다양한 민족 집단을 고려하는 상담공부를 한 경험이 있기를 바란다”, 다른 문화와의 소통은 “가족상담자가 다른 나라 가족 내에서의 차이점을 살피주었으면 좋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채점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척도의 신뢰도는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Cronbach's  $\alpha=0.93$ , 타문화에 대한 이해 Cronbach's  $\alpha=0.92$ , 다른 문화와의 소통 Cronbach's  $\alpha=0.88$ 로 나타났다.

### 4)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에 따른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출신국, 자녀 유무, 시부모 동거 유무, 거주지역, 종교, 결혼기간, 교육수준, 국적취득 여부, 직업, 소득, 가족형태, 한국어능력 등을 조사하였다.

###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 SPSS/Window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각각의 분석방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문화적응,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유형화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varimax)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추출된 요인들을 토대로 유사성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묶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부갈등과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군집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  $\chi^2$ 검정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 경향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은 전체 평균이 2.73으로 평균 수준이었고, 문화적응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통합(3.12)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는 분리(2.95), 동화(2.58), 주변화(2.4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전반적으로 통합의 성향이 높으나, 모국문화를 지향하는 성향 또한 높은 집단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은 전체 문항별 평균이 2.15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갈등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정서적 측면이 2.43으로 가장 높은 부부갈등의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제난이 2.28로 전체 부부갈등의 평균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자녀는 2.14, 시댁식구, 남편태도는 2.10, 남편행동은 1.91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표 3〉 문화적응,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 경향

변수	평균(표준편차)	
문화적응	주변화	2.41(.70)
	분리	2.95(.80)
	통합	3.12(.74)
	동화	2.58(.72)
	문화적응 전체	2.73(.50)
부부갈등	시댁식구	2.10(.89)
	자녀	2.14(.84)
	남편행동	1.91(.75)
	정서적 측면	2.43(.83)
	경제난	2.28(1.04)
	남편태도	2.10(.94)
	부부갈등 영역 전체	2.15(.67)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3.64(1.08)
	타문화에 대한 이해	3.45(1.01)
	타문화와의 소통	3.32(1.04)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영역 전체	3.47(.94)

〈표 4〉 문화적응에 따른 조사대상자 군집 분류

요인	군집	군집(a) 평균 (표준편차)	군집(b) 평균 (표준편차)	군집(c) 평균 (표준편차)	F값	Duncan Test
요인1 주변화		2.91 (±.67)	2.28 (±.54)	1.98 (±.57)	47.83***	a/b/c
요인2 분리		3.68 (±.57)	2.70 (±.56)	2.39 (±.65)	100.19***	a/b/c
요인3 통합		3.39 (±.61)	2.49 (±.56)	3.62 (±.43)	97.61***	c/a/b
요인4 동화		2.88 (±.66)	2.08 (±.49)	2.86 (±.68)	47.39***	ac/b
군집 유형명		복합형 N=80	미분화형 N=88	적응형 N=67	합계 N=235	

\*\*\* p&lt;.001

기대의 전체 문항별 평균은 3.47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각 영역을 살펴보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타문화에 대한 이해’ 3.45, ‘다른 문화와의 소통’ 3.32순으로 나타났다.

##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에 따른 군집의 유형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요인에 따른 군집의 유형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인된 4개의 요인에 대한 응답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비계층적 군집방법(K-means)을 실시하였다. 군집수의 결정은 군집들의 크기가 고르게 분산된 정도와 군집들간의 유사성이 최소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

<표 4>는 3개의 군집과 각 군집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요인 및 상대적 크기, 그리고 군집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3개의 군집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군집 유형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요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각 ‘복합형’, ‘미분화형’,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군집(a)는 80명이 속해 있고 분리의 성향이 3.68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합의 성향이 3.3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군집(a)는 분리와 통합이 모두 높게 나타나 문화적응이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명명하였다. 분리는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이고, 통합은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군집(a)는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주변화나 모국의 문화는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만을 받아들이는 동화, 두 요인보다 이러한 분리와 통합이 뚜렷하게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분리와 통합이 서로 다른 성향인데 동시에 높기 때문에 이 군집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집단은 정진경, 양계민(2004)의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응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전략 선택이 달라지거나 발달과정에서 전략을 바꿔 나갈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이 선호하는 전략을 주류사회에서 반드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는 문화적응 양상이 변화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군집(b)는 3개의 군집 중 가장 많은 수인 88명이 속해 있으며, 문화적응 요인 중 분리의 성향이 평균점수 정도이고 동화에서 다른 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낮게 나타나며, 다른 두 유형에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네 성향이 모두 낮게 나타나 한국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네 요인 중 어느 하나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미분화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c)는 3개의 군집 중 가장 적은 수인 67명이 속해 있으며, 다른 군집들에 비해 문화적응 요인 중 통합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주변화 성향은 뚜렷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한국문화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집단이다. 즉, 한국문화, 모국문화 모두에 잘 적응하는 동시에, 모국의 문화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문화와도 접촉하지 못하는 주변화 성향은 낮기 때문에 ‘적응형’으로 명명하였다.

###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별 특성

#### 1)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다음의 <표 5>는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출신국( $\chi^2=19.6$ ,  $p<.01$ ), 거주지역( $\chi^2=15.5$ ,  $p<.05$ ), 종교( $\chi^2=16.58$ ,  $p<.05$ ), 결혼기간( $\chi^2=9.71$ ,  $p<.05$ ), 시부모 동거유무( $\chi^2=10.70$ ,  $p<.01$ ), 남편직업( $\chi^2=48.51$ ,  $p<.001$ ), 부인직업( $\chi^2=7.75$ ,  $p<.05$ ), 한국어능력( $F=23.17$ ,  $p<.001$ )의 8가지 특성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출신국에 따라 집단별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복합형 집단이 34명(42.5%)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은 미분화형 집단이 38명(43.2%), 필리핀은 미분화형 집단이 28명(3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 출신국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복합형 집단이 11명(13.8%)으로 많이 나타났다. 양옥경 외(2007)의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여성이 문화적응에 있어서 통합의 성향이 높았던 반면,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의 문화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Berry & Kim, 1987)에서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지 않은 베트남 여성이 문화적응에 있어서 주변화 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복합형 집단에서 경기도 27명(33.8%)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라도 19명(23.8%) 순이었다. 미분화형 집단에서도 경기도 30명(34.1%)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라도 23명(26.1%) 순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적응형 집단도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35명(52.2%)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인천지역 12명(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경기지역에서 적응형의 비율이 높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뚜렷하게 파악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는 복합형 집단에서 11명(22.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천주교는 미분화형 집단에서 25명(40.3%), 불교는 적응형 집단에서 20명(48.8%), 통일교는 미분화형 집단에서 7명(11.3%), 종교가 없는 비율은 미분화형 집단에서 10명(16.1%)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 일률적으로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보인다.

결혼기간의 경우, 5년 미만 국제결혼이주여성이 미분화형 집단에서 73명(83.0%)으로 가장 많았고, 5~9년 이하 결혼이주여성에서는 적응형 집단 15명(22.4%), 10년

〈표 5〉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N(%)

	변 수	복합형	미분화형	적응형	x <sup>2</sup>
연령	20-24세	20(25.0%)	32(36.4%)	17(25.4%)	11.07
	25-29세	23(28.8%)	33(37.5%)	28(41.8%)	
	30-34세	12(15.0%)	11(12.5%)	10(14.9%)	
	35세 이상	25(31.3%)	12(13.6%)	12(17.9%)	
출신국	중국	34(42.5%)	16(18.2%)	21(31.3%)	19.6**
	베트남	21(26.3%)	38(43.2%)	29(43.4%)	
	필리핀	14(17.5%)	28(31.8%)	12(17.9%)	
	기타	11(13.8%)	6(6.8%)	5(7.5%)	
거주지역	서울	9(11.3%)	8(9.1%)	9(13.4%)	15.5*
	경기	27(33.8%)	30(34.1%)	35(52.2%)	
	인천	11(13.8%)	16(18.2%)	12(17.9%)	
	충청도	14(17.5%)	11(12.5%)	5(7.5%)	
	전라도	19(23.8%)	23(26.1%)	6(9.0%)	
종교	기독교	11(22.0%)	3(4.8%)	7(17.1%)	16.58*
	천주교	13(26.0%)	25(40.3%)	10(24.4%)	
	불교	17(34.0%)	17(27.4%)	20(48.8%)	
	통일교	3(6.0%)	7(11.3%)	2(4.9%)	
	종교 없음	6(12.0%)	10(16.1%)	2(4.9%)	
자녀	있음	51(63.8%)	60(68.2%)	53(79.1%)	4.25
	없음	29(36.3%)	28(31.8%)	14(20.9%)	
결혼기간	5년 미만	61(76.3%)	73(83.0%)	50(74.6%)	9.71*
	5-9년	11(13.8%)	14(15.9%)	15(22.4%)	
	10년 이상	8(10.0%)	1(1.1%)	2(3.0%)	
시부모 동거유무	예	44(55.0%)	62(70.5%)	30(44.8%)	10.70**
	아니오	36(45.0%)	26(29.5%)	37(55.3%)	
부인직업	직업없음	61(76.3%)	80(90.9%)	59(88.1%)	7.749*
	직업있음	19(23.8%)	8(9.1%)	8(11.9%)	
가족형태	부부와 자녀	28(35.0%)	22(25.0%)	32(47.8%)	11.08
	시부모+부부+자녀	20(25.0%)	30(34.1%)	12(17.9%)	
	시부모+부부	17(21.3%)	16(18.2%)	9(13.4%)	
	기타	15(18.8%)	20(22.7%)	14(20.9%)	
남편직업	무직	5(6.3%)	14(15.9%)	2(3.0%)	48.51***
	자영업	8(10.0%)	2(2.3%)	19(28.4%)	
	제조업	28(35.0%)	33(37.5%)	18(26.9%)	
	단순노무직	3(3.8%)	8(9.1%)	6(9.0%)	
	사무직	14(17.5%)	19(21.6%)	12(17.9%)	
	서비스직	5(6.3%)	-	3(4.5%)	
	판매직	8(10.0%)	3(3.4%)	1(1.5%)	
	농, 임, 어업	6(7.5%)	9(10.2%)	4(6.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9(11.3%)	19(21.6%)	14(20.9%)	13.93
	100-150만원	18(22.5%)	27(30.7%)	16(23.9%)	
	150-200만원	18(22.5%)	20(22.7%)	15(22.4%)	
	200-250만원	12(15.0%)	12(13.6%)	9(13.4%)	
	250-300만원	10(12.5%)	8(9.1%)	7(10.4%)	
300만원 이상	13(16.3%)	2(2.3%)	6(9.0%)		
한국어 능력*	평균(표준편차)	3.38(.77)	2.70(.76)	3.41(.71)	F=23.17***
합계		80	88	67	

\* p<.05, \*\* p<.01, \*\*\* p<.001

\*주: 일원변량분석 결과임.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복합형 집단이 8명(10.0%)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최혜지(2009)의 연구에서는 이주초기에 이주문화에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본 연구에서는 5년 미만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이 낮게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경우도 결혼기간이 높아 문화적응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리와 통합의 성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복합형 집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결혼기간이 높아질수록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자국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부모 동거유무를 살펴보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결혼이주여성은 미분화형 집단이 62명(70.5%)으로 가장 많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적응형 집단 37명(55.3%)에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의 영향 변인 중 시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시부모와의 관계가 이들의 문화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직업은 복합형 집단에서는 제조업이 28명(35.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미분화형 집단에서도 제조업이 33명(37.5%)으로 높은 반면, 적응형 집단에서는 자영업이 19명(28.4%)으로 가장 높았다.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에서는 직업이 없는 경우는 미분화형 집단에서 80명(90.9%)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는 복합형 집단에서 19명(23.8%)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능력의 경우, 적응형 집단과 복합형 집단에서 한국어 능력이 평균 이상이었고, 미분화형 집단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평균 정도였다. 대략적으로 문화적응이 높은

집단에서 한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2) 문화적응 유형별 부부갈등

다음의 <표 6>은 문화적응 유형별로 부부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여섯 개의 영역 중 시댁식구(F=4.17, p<.05), 남편행동(F=5.88, p<.01), 정서적 측면(F=10.34, p<.001), 남편태도(F=3.39, p<.05)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시댁식구, 남편행동에서 복합형 집단, 미분화형 집단이 적응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측면에서는 복합형 집단이 미분화형, 적응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태도에서는 복합형 집단과 적응형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형 집단이 시댁식구, 남편행동, 정서적 측면, 남편태도 영역에서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형 집단이 시댁식구, 남편행동, 정서적 측면, 남편태도 영역에서 갈등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 3) 문화적응 유형별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표 7>은 문화적응 유형별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영역 중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와의 소통을 나타낸 것이다.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하위 영역 중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F=6.18, p<.01), 타문화에 대한 이해(F=8.96, p<.001), 타문화와의 소통(F=6.63, p<.01) 등 모

<표 6> 문화적응에 유형별 부부갈등

N=235

부부갈등	복합형(a) 평균(표준편차)	미분화형(b) 평균(표준편차)	적응형(c) 평균(표준편차)	F	Duncan Test
시댁식구	2.23(.92)	2.11(.87)	1.82(.76)	4.17*	ab/c
자녀	2.23(.87)	2.10(.79)	2.07(.86)	.79	abc
남편행동	2.09(.85)	1.93(.70)	1.67(.63)	5.88**	ab/c
정서적 측면	2.74(.79)	2.36(.80)	2.15(.80)	10.34***	a/bc
경제난	2.46(1.12)	2.24(1.01)	2.12(0.97)	1.20	abc
남편태도	2.36(0.93)	2.14(0.83)	1.99(0.91)	3.39*	ab/bc
합계	80	88	67	235	

\* p<.05, \*\* p<.01, \*\*\* p<.001

〈표 7〉 문화적응에 따른 집단별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N=230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	복합형(a) 평균(표준편차)	미분화형(b) 평균(표준편차)	적응형(c) 평균(표준편차)	F	Duncan Test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3.86(.97)	3.33(1.18)	3.80(1.01)	6.18**	b/ca
타문화에 대한 이해	3.81(.87)	3.17(1.04)	3.38(1.02)	8.96***	bc/a
다른 문화와의 소통	3.61(.95)	3.03(1.08)	3.36(1.00)	6.63**	bc/ca
합계	78	87	65	230	

\*\* p&lt;.01, \*\*\* p&lt;.001

두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결과,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에서 미분화형 집단이 복합형 집단, 적응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복합형 집단이 미분화형 집단, 적응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문화와의 소통에서는 복합형 집단과 미분화형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는 복합형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미분화형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요약하면, 통합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부부갈등,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적응의 경우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의 순으로 높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국제결혼이주여성은 전반적으로 통합의 성향이 높으나, 모국문화를 지향하는 성향 또한 높은 집단이다. 다음으로 전반적인 부부갈등은 다소 낮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표집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역사회 기관들의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 예방과 해체에 중요한 변수이고 부부와 가족생활,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알 수 있듯이(김오남, 2006a), 이러한 기관 참여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게 사회적 지지원으로 작용하여 부부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의 세 하위영역 중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다문화 관련업무 종사자를 포함한 한국인의 타문화에 대한 태도 발달의 필요성을 언급한 박주희, 정진경(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복합형, 미분화형, 적응형의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복합형 집단은 4개의 문화적응 요인 중 분리와 통합의 요인이 높게 나타난다. 이 집단은 문화적응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자기문화에 대한 요구도 주장하면서, 한국사회에 통합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미분화형 집단도 4개의 문화적응 요인에서 복합형과 강도만 다를 뿐이지 통합-분리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모국사회에도 한국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이다. 적응형 집단은 확연히 통합의 요소가 높게 나타난다.

셋째, 문화적응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출신국, 거주지역, 종교, 결혼기간, 시부모 동거유무, 남편직업, 부인직업, 한국어능력'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복합형 집단의 경우, 출신국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종교는 불교, 거주지역은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한국어능력은 평균 이상이다. 5년 미만의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이 높다. 또한 복합형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수가 많다. 이들 남편의 직업은 제조업인 경우가 많다. 복합형 집단에 결혼기간 10년 이상인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지만, 이후 이주사회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문화적응 경향을 보이는 것(최혜지, 2009)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복합형 집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무조건적으로 동화되는 것만이 우선이 아닌 자국 문화에 대한 차이 인정과 존중에 대한 욕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우리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고 보인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통합과 분리의 문화적응성향을 동시에 지닌다고 하는 것은 이주자의 유입과 정착 과정 시기별로 다른 다문화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문화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모국문화를 견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존중하여 일방적인 동화정책이 아닌 상대방 문화를 고려하는 다문화정책의 실시가 필요함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분화형 집단의 경우,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종교로는 천주교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미분화형 집단에 천주교가 국교인 필리핀 출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분화형 집단의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다. 이들의 한국어 능력은 보통의 수준이고, 대부분의 국제결혼이주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들의 남편 직업은 복합형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인 경우가 많다. 미분화형 집단에 결혼기간이 짧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결혼이주여성일수록 주류사회와 모국 문화 모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나타난 양옥경 외(2007)의 연구결과와 연관 지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결혼기간이 짧은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초기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국제결혼한 부부관계의 유지와 질적인 향상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적응형 집단도 미분화형 집단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출신국이 중국이다. 거주 지역은 경기도에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종교가 절반 정도 불교이고, 세 집단 중 한국어능력 수준이 가장 좋고, 남편직업이 자영업인 경우가 많다. 적응형 집단은 한국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집단으로 세 집단 중 한국어능력 수준이 가장 좋은 것은 한국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보다 폭넓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의 배양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 김오남(2006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유형별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부부갈등 여섯 개의 영역 중 시댁식구, 남편행동, 정서적 측

면, 남편태도 등 4가지 영역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복합형 집단이 4가지 영역에서 갈등이 높게 나타나며, 적응형 집단이 갈등이 낮게 나타난다. 시댁식구, 남편 행동에서 복합형 집단, 미분화형 집단이 적응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적 측면에서는 복합형 집단이 미분화형, 적응형 집단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태도에서는 복합형 집단과 적응형 집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형 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이 집단은 모국의 문화를 더 잘 유지하고 새로운 한국문화에는 적응을 못하는 분리의 성격이 강하고, 모국의 문화보다 새로운 한국문화에 적응을 하는 동화 점수가 낮기 때문에, 이들의 부부갈등이 높은 현상이 바로 이러한 문화적응 상태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상 시댁 식구와의 관계나 남편 행동에 대한 인식, 남편과의 정서적 측면의 소통이나 교감, 남편 태도에 대한 수용 등 결혼생활이나 가족, 부부간의 관계가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할 때, 이러한 측면에서의 마찰이나 부적응은 부부갈등과 연결될 소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한편, 적응형 집단에서 부부갈등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한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과 어려움을 언급한 선행연구들(강유진, 1999; 성지혜, 1996;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과 같이 언어차이를 극복하고 한국문화에 적응될수록 갈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제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소개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지만, 보다 바람직한 다문화적 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들에게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모국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이들 문화적응 유형별로 부부·가족상담을 하는 데 있어 각 유형 집단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별적인 전략이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먼저 부부·가족상담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유형 집단은 복합형으로 보인다. 이들 집단은 부부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집단으로서 통합의 성향도 있지만 분리의 성향이 강하고 동화의 성향은 낮기 때문에, 모국문화에서의 부부 및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나 존중이 상담과정에서도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집단이 가지고 있는



통합 성향을 잘 활용하여 현재 한국의 가족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분화형 집단은 복합형보다 부부갈등의 정도는 낮지만 문화적응의 네 요인에서 두루 점수가 낮기 때문에 성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집단이다. 하지만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 분류에서의 추후검증 결과(<표 4> 참조)를 놓고 볼 때, 다른 두 유형 집단에 비해 통합이나 동화의 점수가 뚜렷하게 낮은 특징을 보이므로, 이들 집단은 아직 한국사회의 현실에 잘 적응을 못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를 수용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의 가족문화나 가족관계에 대한 설명이나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낯설게 느껴지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가와 구체적인 적응 전략의 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이 집단에 속하는 내담자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적응형 집단은 통합의 성향이 월등히 높고 부부갈등의 정도도 세 유형 집단 중 가장 낮기 때문에 부부·가족상담의 개입 요구가 절실하지 않은 집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상담과정에서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적응 자원을 활용하여 부부나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강점 전략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적응 유형별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면,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별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는 작업의 유용성은 내담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문화상담 전략 개발의 차별화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세 집단 모두에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대체로 높은 것은 부부·가족상담에 시사하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이미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정책적 개입이나 복지대책을 마련할 때 현장 실무자들이나 실천가들의 다문화역량에 대한 기대를 의식해야 함을 일깨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복합형이 세 영역 모두에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고, 미분화형은 세 영역 모두에서 가장 낮다. 복합형은 분리와 통합의 성향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부부갈등도 가장 높은 집단이다. 따라서 부부·가족상담에 대한 요구가 크면서도 그 상담과정에서 자신들의 모국 문화에 대한 존중에 대한 요구가 클 것이기 때문에 가족

상담자에게서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른 문화와의 소통 등 다문화역량에 대한 기대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뚜렷하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위해서는 가족상담자가 다문화 지식, 태도, 기술을 갖추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가족문제에 개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분화형은 부부갈등은 복합형보다 낮지만 문화적응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보이지 못하는 집단으로서, 이러한 상태가 가족상담자의 다문화역량에 대한 기대에도 반영되어 자신들이 다문화역량을 갖춘 가족상담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다른 두 집단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또한 이들의 가족상담자의 다문화역량에 대한 기대가 낮은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 즉 이들 집단이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응하는 지표로 이용되는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기 때문에(<표 5> 참조) 가족상담자의 다문화역량에 대한 기대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인다. 부부·가족상담에서 이들에게 접근할 때는 이들이 자신들의 문화적응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으므로 먼저 자신들의 현재 처지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부부갈등의 문제도 부부·가족상담의 개입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보인다.

적응형은 부부갈등의 정도는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낮았으나, 가족상담자의 다문화역량에 대한 기대는 전반적으로 복합형의 수준 정도를 보인다. 이는 이 집단이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히 하면서도 가족상담자에게서는 다문화역량을 기대할 정도의 다문화에 대한 요구를 지니고 있는 상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들을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상담에서 자료인사나 집단상담원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표집으로 인한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이나 결혼기간 5년 미만의 여성들에 표본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 차이나 결혼기간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집을 시도하여

문화적응과 관련된 일반화의 가능성이나 정교성을 제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을 주로 지역기반 기관을 통하여 접근한 것으로 인해 이러한 기관과 연결되지 않는 일반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통상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기관에 참여할 수 있는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관과 연계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갈등상황이나 문제상황을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전략 고안과 실시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상의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문화적응 척도의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Berry(2001)의 ‘동아시아문화적응척도(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에 기반을 둔 척도를 사용하였지만, 이는 타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한 것이어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문화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연구와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는 척도에서도 기술적 부문의 문화적 역량을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척도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문화적응에 따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국제결혼이주여성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적 인식이나 지식 등 다문화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에 대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기대를 끌어내고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그 성과와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국제결혼이주여성, 부부갈등, 가족상담자, 문화적 역량, 문화적응

## 참 고 문 헌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61-80.

김경신. (2009). 다문화가족 사업 평가 및 정책 대안. 한국가족학회지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9-40.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김연희. (2007).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사회복지분야의 문화적 역량. **한국사회복지연구회**, 35, 117-144.

김오남. (2006a).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오남. (2006b).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8, 33-76.

김유경, 조애저, 최현미, 이주연. (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호. (1995). 다문화주의 상담의 동향과 한국사회에서의 발전과제. **원광대학교 교육연구소**, 14, 231-246.

남순현. (2008). **다문화가족상담**. 광주: 광인사.

노하나. (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외숙. (1996). 다문화적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에 대한 검토. 한국심리학회 창립 50주년 동계 연구 세미나 자료집.

박은진.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과 스트레스 그리고 심리적 건강.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종삼. (1983). 한·미 국제결혼에서 나타나는 의사전달 갈등의 임상적 고찰. **한국사회학**, 2, 1-15.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박주희, 정진경. (2008). 타문화에 대한 태도발달검사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21.

박태영. (1998).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5, 27-50.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성지혜. (1996). 중국교포여성들과 한국남성간의 결혼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은록. (2004).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 요인과 갈등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 여성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미경. (2009).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상담의 모색.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23, 41-51.

- 송성자. (1974).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갈등.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희, 양성은. (2006).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5), 1-8.
- 양순미, 정현숙. (2006). 농촌 국제결혼부부의 결혼생활 적응과 만족에 대한 영향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3), 223-252.
- 양옥경,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양옥경, 송민경, 임세와. (2009). 서울지역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37-168.
- 여성가족부. (2005). 국제결혼부부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 윤형숙. (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최협 · 김성국 · 정근식 · 유형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서울: 한울.
- 이규삼. (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금연. (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선주, 양애경, 장미혜, 최현미, 송성실. (2008).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I):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승중.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호. (2007). 베트남 국제결혼가정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성숙, 황주연. (2006). 자아강도와 자기은폐에 따른 상담동기와 상담자에 대한 기대.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2, 39-55.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01-136.
- 정천석, 강기정.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3(1), 5-23.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 최금해. (2007).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결혼생활 적응유형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연실, 권용혁, 김태성, 우실하. (2007). 한 · 중 국제결혼에서의 갈등과 적응: '소외'와 '타자화'의 체험에서 '소통'과 '화합'의 모색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251-299.
- 최운선. (2007).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46(1), 141-181.
- 최외선. (1992). 아내가 인지한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133-143.
- 최현미. (2008). 다문화시대의 전문인력 양성. 전북상담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자료집.
- 최현미, 이해경, 신은주, 최승희, 김연희, 송성실. (2008). **다문화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통계청. (2009). 2008년도 이혼통계. 서울: 통계청.
- 하명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지승, 최연실. (2008). 기혼남녀의 성인애착 유형과 가족상담 기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67-94.
- 홍달아기, 채옥희. (2006a).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 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홍달아기, 채옥희. (2006b).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1-12.
- Berry, J. W. (1976). *Human ecology and cognitive style: Comparative studies in cultu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New York: Sage/Halsted.
- Berry, J. W., & Kim, U. (1987). "Accultural and mental health." In Dasen P., Berry J. W. and N. Satorius(Eds.).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 Health Towards Applications*. London.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98).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Be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Cross, T. L., Bazron, B. J., Dennis, K. W., & Issacs, M. R. (1989). *Towards a culturally competent system of care*.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 Manoleas, P. (1994). "An outcome approach to assess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MSW stud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3, 43-57.
- McPhatter, A. (1997). "Cultural competence in child welfare: What is it? How do we achieve it? What happens without it?". *Child Welfare*, 76(1), 255-278.
- Ponterotto, G. J., Gretchen, D., Utsey, O. S., & Rieger, P. B. (2002). "A revis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awareness scal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143-180.

접 수 일 : 2010. 10. 19.  
 수정완료일 : 2010. 11. 23.  
 게재확정일 : 2010. 12. 07.